

# 광남일보

##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통합하면 통 큰 지원”

시도 단체장·국회의원과 오찬...“7월 통합지자체 출범”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공공기관 이전·기업 유치 지원  
2월 특별법 제정·6월 통합단체장 선출...지선 판도 변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40년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행정통합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규모의 ‘슈퍼 지자체’ 탄생을 기대된다.

▶관련기사 2·8·9·19면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격적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 지원할 테니 통합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며 “시·도지사가 결단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잘 의논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행정부의 후속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논

의를 전달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통합 특별법과 연계한 지원 특례 내용을 오는 15일 전후로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광주·전남 통합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이후 통합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17일 예정된 국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 권한 부여를 비롯해 대규모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심사 간소화, 산업·기업 유치 관련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농협중앙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행정통합 업무를 전달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통합 종합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광주·전남통합 오찬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수립과 특별법 대응, 공론화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양 시·도는 조만간 민간 합동 형태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방정부의 기본 방향과 공론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부단체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시군 협의회, 광역의회, 경제계, 교육계, 사회단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달 중 광주·전남 지역 기관장과

주요 인사 300~400명 규모의 범시민민 협의회도 출범해 행정통합 관련 설명과 의견 수렴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민투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의기관 의결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되 주민설명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세종·대전(144만명, 71조원), 부산·울산·경남(770만명, 342조원)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줬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그 사이 시·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정부, 올해 성장률 2% 달성...727조 투입

재경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국부펀드 20조 추진

정부가 올해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 투자에 나선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또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 특구’를 도입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재경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지출 727조9000억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투입한다.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을 반

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성오 기자 sole235@



안세영이 11일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왕즈이를 꺾고 3연패를 달성한 뒤 손가락 3개를 펼쳐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뽀빠

### ‘적수가 없다’ 안세영, 새해 첫 국제대회 우승

왕즈이 2-0 완파...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금자탑’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며 독주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기사 15면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제압했다.

안세영은 이로써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던 2인자 왕즈이를 다시 한번 꺾으면서, 통산 상대 전적에서 17승 4패로 ‘공안중’을 안겼다.

‘공안중’은 중국 언론과 팬들이 안세영과 상대하면 두려워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 배드민턴계를 풍자할 때 쓰는 신조어다.

안세영은 지난해 최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 3175달러)을 달성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시대를 열었다.

올해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한 안세영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3일 개막하는 인도 오픈에서 시즌 2관왕을 노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